

유기 농경지 관리 기술 밭 토양 탄소저장량 ↑

유기 자원 활용·돌려짓기로 관리 시 무기질비료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아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유기 자원 활용, 돌려짓기(윤작) 같은 유기 농경지 관리 기술이 밭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양 탄소는 토양 질 개선과 작물 생산성 증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화(넷제로, 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저감 뿐만 아니라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늘려야 한다. 토양 탄소 저장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토양 탄소 저장량과 안정화된 탄소 함량을 증대하기 위한 농경지 토양 관리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농진청은 유기 자원을 활용하거나 돌려짓기(옥수수·밀·콩·밀, 옥수수·해

어리배치-배추-밀)로 유기 농경지를 관리했을 때 토양의 총 탄소 함량과 이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한 안정화된 탄소 함량이 모두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토양의 탄소 함량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쫓겨잡작물을 활용한 경우 18%, 퇴비를 활용한 경우 44% 높게 나타났다. 돌려짓기를 했을 때는 58~79%까지 많아졌다.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한 안정화된 탄소(미사·점토 결합 탄소) 함량은 유기 자원을 활용하거나 돌려짓기를 한 토양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토양보다 최대 1.9배 증가했다.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한 안정화된 탄소(부식) 함량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토양보다 퇴비를 활용한 토양과 쫓겨잡작물을 활용한 토양에서 각각 14% 높았고

돌려짓기를 한 토양에서는 45%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 옥수수를 유기재배한 결과,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의 옥수수 수량(10아르당 963kg)과 퇴비(880kg), 쫓겨잡작물(928kg) 활용, 돌려짓기(940~1,139kg) 수량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어서 유기 자원 활용과 돌려짓기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측정해 토양 탄소 저장량과 함께 종합적인 탄소수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농진청 유기농업과 박상구 과장은 "유기 농경지 관리 기술이 밭 토양 탄소 저장량을 늘리는데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라며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려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영업점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방·편·신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최초 '방·편·신 현장교육'

농협은행 전북본부,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강조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영업점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방·편·신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2년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등 WM담당자들의 고객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담당자들은 교육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국내·외 경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경민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다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발맞춘 고객중심 금융서비스가 중요하다"라며 "2022년에도 고객 중심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순창군민 발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 발굴”

임현석 농어촌공
순창지사장 취임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임현석)는 13일자로 임현석 지사장이 순창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 취임했다.



신임 임현석 순창지사장은 1991년에 입사해 전북본부, 동진지사, 남원지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등 현장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전북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을 역임하면서 물관리업무를 총괄 계획 수립하여 왔으며, 2022년도 전북지역본부내 보직자 인사발령에 따라 1월 13일자로 순창지사장에 부임하게 되었다.

임현석 지사장은 코로나 19로 더욱 어렵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전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기본으로 순창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등 지사를 만들어내겠다"고 취임사를 하였으며, "순창군민 발전을 위해서 순창군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될 것"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병원 '봄 케어' 캠페인 2기 활동 돌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신년을 맞아 환자중심 병원문화 정착을 위한 '봄 케어' 인사캠페인 2기 활동에 돌입했다.

고객인권지원실이 주관하는 '봄 케어' 캠페인은 '사람을 봅니다'를 슬로건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실현을 통해 사람중심의 의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집행부와 환자

경험 접점 부서 등이 참여한 봄 케어 전략팀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캠페인 중간 평가 결과 직원과 환자 간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2차 캠페인은 ▲직원 참여 눈맞춤 인사 방송 ▲프로모션 2차 활동 ▲봄이 포토테니상을 찾아라 등을 시행한다. 직원 참여 눈맞춤 인사방송에서는 평일

하루 2회(오전 8시 25분, 오후 1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봄이 목소리' 방송을 통해 건강한 인문화를 복돋고 있다. 프로모션 2차 활동에서는 2인 1조로 일차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직원 대상의 인사활동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간식을 전달해 직원들의 마음에 환기를 불어넣고 있다. 봄이 포토테니 상은 인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외부 고객 간의 눈맞춤 인사를 포착한 베스트 사진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최대희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학교 텃밭 교육, 잠재적 가치 크다

사회·경제적 가치 등 추징액 연간 총 6692억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6,692억원(사회적 가치 1,931억원, 경제적 가치 4,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가치 630억원,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 가치 512억원, 기후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환경 가치 467억원, 심미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등 복지 가치는 322억원이었다.

또한 학교 텃밭 교육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4,761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사 고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 2,662억원, 텃밭 조성에 따른 산업 파급 효과 1,573억원, 학교 텃밭 교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행병 세부 분류에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있고, 학습과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학교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을 도시농업으로 정의한다.

농진청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교 텃밭 교육의 가치를 객관화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이춘수 교수팀과 함께 지난해 3~10월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적 가치는 운영기금 기준 연간 1,931억원(2020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학습 능력 향상과 사회성을 증진하는

교육 가치 630억원,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 가치 512억원, 기후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환경 가치 467억원, 심미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등 복지 가치는 322억원이었다.

학교 텃밭 사업에 참여한 전주 근영중학교 강성수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 태도와 식습관이 개선되었고 생명존중 인식도도 높아졌다"라며 "특히 환경 감수성은 2% 식물 흥미도는 5.3% 정서 안정도는 4.2%가 상승하는 정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학교 텃밭 사업에 참여한 전주 근영중학교 강성수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 태도와 식습관이 개선되었고 생명존중 인식도도 높아졌다"라며 "특히 환경 감수성은 2% 식물 흥미도는 5.3% 정서 안정도는 4.2%가 상승하는 정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 설 명절 맞이 특별운전자금 지원

내달 28일까지 도내 중기 대상
신규 2500억 등 총 5000억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설을 앞두고 도내 및 당행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설 명절 맞이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채지급 결체,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으로, 거래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상여어음환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과 기금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 기업은 전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전북은행 콜센터(1588-4477)를 통해 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 지난해 직원 참여

청렴 공모 출품작 책자로 발간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LX공사)가 지난해 직원들이 참여한 청렴 공모전 출품작을 책자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LX 청렴 공모전은 청렴을 소재로 시(詩), 웹툰, 포스터 부분으로 나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LX공사 청렴운디부는 직원들의 고민이 담긴 재미 있는 이야기와 글, 이미지 등을 통해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는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매년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긍정적이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우리 공사를 향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담당자 조 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서부산림청, 하동 소나무숲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예찰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을 위해 산림 헬기를 활용, 하동군 및 진주시 소나무 숲에 대한 항공예찰 및 광안지역 기관장 면담을 했다.

서부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은 매년 8-10월, 12-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예찰은 2022년 제1차 정기 항공예찰로 하동군 약 14,000ha, 진주시 약 19,000ha의 산림에 대하여 서부지방산림청장, 함양국유림관리소장, 경남도청 담당 팀장 등이 합동으로 예찰을 실시해 방제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지역현황 및 피해 고사목을 확인했다.

권장현 서부청장은 이번 항공예찰과 더불어 광안지역 부지장 면담을 실시해 서부청에서 실시하는 광안지역 재선충병 방제 현황을 공유하고, 3월 말까지 광안시 소나무재선충병 원인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인력, 예산 등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올해 방제사업에 총력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의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